

## 2023.12.28.(목)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3-12-28 오전 4:18

수정한 날짜: 2023-12-28 오전 4:22

### 2023.12.28.(목) 증권사리포트

삼성SDI

2024년 중요한 변화 포인트

[\[출처\] NH투자증권 주민우 애널리스트](#)

EBITDA를 앞서나가기 시작하는 Capex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60만원 유지. 2024년 매출액은 24.5조원(+6% y-y), 영업이익 2.2조원(+26% y-y, 영업이익률 9%)으로 컨센서스(26.3조원/2.3조원) 대비 약 7% 낮을 전망. 2024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1,770만대(+26% y-y)와 동사 고객 구성(BMW 40%, Stellantis 25%, Audi 15~20% 등)을 감안한 동사 판매량 성장률은 +24% y-y를 전망하나, 메탈 가격 반영에 의한 평균 판가가 -10% y-y 예상돼 전지부문 매출액 성장률은 +7%에 그칠 전망

배터리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2024년 동사의 Capex(5.7조원)가 EBITDA(4.1조원)를 앞지를 전망. 그동안 동사의 보수적인 증설 전략의 원인이었던 'EBITDA 내의 Capex 집행' 원칙이 깨질 것으로 예상. 2024년 신규수주(BMW, 현대차) 역시 기대돼 증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보임

4Q23 preview: 4분기 치고는 양호한 실적 예상

4Q23 매출액은 5.9조원(-1% y-y, -1% q-q), 영업이익은 4,304억원(-12% y-y, 영업이익률 7.3%)으로 컨센서스 대비 각각 -4%, -18% 예상. 부문별로는 중대형전지 3.5조원(+2% q-q, 영업이익률 6%), 소형전지 1.7조원(-8% q-q, 영업이익률 7%), 전자재료 0.6조원(+7% q-q, 영업이익률 15%) 추정. 중대형 전지는 전미자동차노조 파업 영향으로 스텔란티스 향 판매에 차질이 있었고, 소형전지는 전동공구 수요 부진영향, 전자재료는 반도체 감산 영향으로 추정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20,124	23,047	24,551	28,570
증감률	48.5	14.5	6.5	16.4
영업이익	1,808	1,752	2,212	3,576
증감률	69.4	-3.1	26.2	61.7
영업이익률	9.0	7.6	9.0	12.5
(지배지분)순이익	1,952	2,006	1,926	2,781
EPS	28,366	30,662	29,431	42,499
증감률	67.0	8.1	-4.0	44.4
PER	20.8	14.6	15.2	10.5
PBR	2.5	1.6	1.4	1.3
EV/EBITDA	13.4	9.8	9.1	6.8
ROE	12.5	11.4	9.7	12.5
부채비율	75.7	68.0	78.0	76.9
순차입금	1,966	2,590	5,869	8,246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1. BMW BEV 월별 판매량 y-y (YTD 성장률 +112%)



자료: EV VOLUME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Audi BEV 월별 판매량 y-y (YTD 성장률 +56%)



자료: EV VOLUME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LG에너지솔루션

실적보다는 분위기 전환에 주목할 필요

[\[출처\] NH투자증권 주민우 애널리스트](#)

2024년, 실적보다는 분위기 전환에 주목할 필요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53만원 유지. 2024년 매출액은 35조원(+5% y-y), 영업이익 3.7조원(+70% y-y, 영업이익률 10.7%)으로 컨센서스(40조원/4.1조원)대비 약 10% 부진할 전망. AMPC(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는 2.0조원(+191% y-y) 예상. 2024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1,770만대(+26% y-y)를 가정해 동사 판매량 성장률은 +21% y-y를 전망하나, 메탈 가격 반영에 의한 평균 판가가 -10% 초반 y-y 예상돼 매출액 성장률은 부진할 전망

2024년 실적 자체는 부진할 전망이나, 주가는 분위기 전환(금리 하락, 리튬가격 반등, 우호적인 정책, OEM의 전기차 가이던스 재수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 당사는 수요의 계절성, 리튬 가격, 각국 정책을 감안해 분위기 전환 시점을 2Q24~3Q24로 예상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권고

4Q23 Preview: P와 Q 모두 부진할 전망

4Q23 매출액은 8.0조원(-6% y-y, -2% q-q), 영업이익 3,854억원(+62% y-y, 영업이익률 4.8%)으로 컨센서스 대비 각각 -6%, -39% 예상. AMPC는 2,649억원(+23% y-y)으로 추정되고, AMPC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1,205억원(영업이익률 1.5%)으로 부진할 전망. 메탈가격 연동에 의한 평균 판가 하락(약 -10% q-q)과 수요부진에 따른 판매량 저조로 매출과 수익성 모두 부정적 영향. 부문별로는 자동차 전지 5조원(-9% q-q, 영업이익률 5%), 소형전지 2.2조원(-6% q-q, 영업이익률 3%), ESS 0.9조원(+150% q-q, 영업이익률 7%)로 추정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25,599	33,775	35,461	47,967
증감률	43.4	31.9	5.0	35.3
영업이익	1,214	2,210	3,778	6,827
증감률	57.9	50.9	25.5	55.6
영업이익률	4.7	6.5	10.7	14.2
(지배지분)순이익	767	1,410	1,958	3,329
EPS	3,305	6,027	8,368	14,224
증감률	-16.6	82.3	38.9	70.0
PER	131.8	68.9	49.7	29.2
PBR	5.4	4.7	4.0	3.3
EV/EBITDA	34.6	21.8	15.1	9.4
ROE	5.7	7.1	8.7	12.5
부채비율	86.0	86.8	86.2	84.3
순차입금	2,077	4,189	6,158	5,870

단위: 십억원, %, 원, 배



---

한국단자

전기차 덕 좀 봅니다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 자동차용 커넥터 및 전장모듈 생산

한국단자는 자동차(비중 75%) 및 전자용으로 쓰이는 커넥터와 전장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주요 고객사로는 자동차용으로 경신, 유라코퍼레이션 등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를 통해 현대차/기아(비중 60~70%, 기타 르노/KG/GM/BYD/글로벌EV 등)로 납품하고 있고, 전자용은 삼성전자/LG전자 등이다. 국내 시장을 세계 1위인 TE Connectivity와 양분하고 있다. 제품수는 무려 8,500종에 이른다. 한국/중국 공장이 주력이고, 베트남/폴란드/멕시코/미국 등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율을 53%이고, 원재료 중 48%가 구리 등 비철금속이다(매출액 대비 26%).

## 자동차의 전장화 및 전동화에 따른 수혜

한국단자의 3분기 누적 매출액/영업이익은 14%/137% (YoY) 증가한 9,674억원/868억원(영업이익률 9.0%, +4.7%p (YoY))이었다. 전자용이 6% 감소했지만, 자동차용이 25% 증가했는데, 물량 증가와 함께 ASP 상승이 기여했다. 비철원재료 가격이 1.4% 하락하는 등 원재료/재고 변동이 이익률에 +3.8%p 기여했고, 외형 상승에 따른 상각비/연구개발비 등의 부담 완화도 +1.1%p/+0.3%p씩 기여했다. 향후 한국단자의 성장에서 주목할 점은 2가지이다. 첫째, 자동차의 전장화 및 전기차 전환에 따른 수혜이다. 자동차 내 전장품의 사용이 많아지고, HEV/PHEV/BEV 등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커넥터의 사용량 및 단가 상승이 발생 중이다. IT/커넥티비티의 채택 확대는 전장품 간, 그리고 이를 제어하는 ECU를 연결하는 커넥터의 사용량을 늘린다(차종별로 +20~40%). 전기차 전환은 배터리용 ICB(Inter-Connect Board)와 같은 신규 수요를 만들고, 고전압 대응을 위한 기능 및 신뢰성 추가, 그리고 모듈화 등으로 단가 상승도 가져온다. 실제 한국단자의 자동차용 단가는 2019년/2020년/2021년/2022년 3.7%/1.7%/3.7%/7.0%씩 상승했고, 2023년 3분기 누적으로도 5.0% 상승했다. 둘째, 폴란드/미국/멕시코 법인의 성장이다. 폴란드 공장은 2020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57억원, 2021년 177억원, 2022년 21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2023년 3분기 누적으로는 270억원로 증가했다. 미국/멕시코 법인은 북미 내 판매 및 생산을 담당하는 법인으로 북미 완성차 및 현지 진출한 2차전지 생산업체들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아 매출액이 급성장 중이다. 미국/멕시코 법인의 매출액은 2022년 각각 68억원/18억원이었고, 2023년 3분기 누적으로는 403억원/112억원을 기록했다. 수주 물량을 기반으로 향후 몇 년간 고성장이 예상된다.

## 고성장을 감안할 때 P/E 8배 이하의 주가는 저평가 판단

현재 주가는 P/E 8배, P/B 0.8배 이하이다. 자동차의 전장화/전동화 트렌드에 맞춰 수요와 단가가 상승하는 아이템들이고, 해외 고객사들로부터의 관련 수주가 추가되면서 고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라는 판단이다.

##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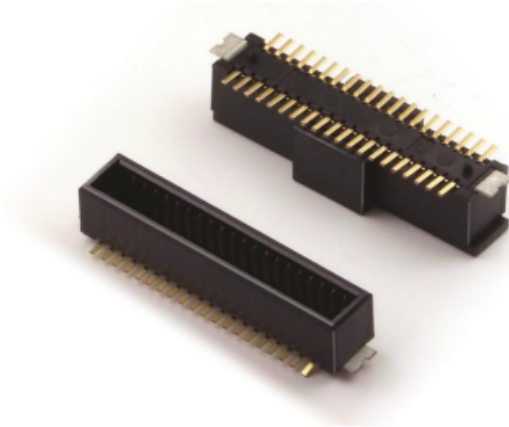
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772	802	962	1,168
영업이익	34	79	76	64
세전이익	39	78	86	70
순이익	32	58	63	49
EPS	3,062	5,550	6,041	4,677
증감율	(19.5)	81.3	8.8	(22.6)
PER	14.0	11.2	12.6	11.1
PBR	0.6	0.8	0.9	0.6
EV/EBITDA	4.1	3.7	5.2	3.9
ROE	4.5	7.6	7.5	5.6
BPS	68,181	73,675	81,164	83,872
DPS	700	700	700	700

도표 4. 한국단자의 제품 - 전기차용 고전압 전선 커넥터



자료: 한국단자

도표 5. 한국단자의 제품 - 스마트카용 보드투보드 커넥터



자료: 한국단자

도표 6. 한국단자의 제품 - 고전압 퓨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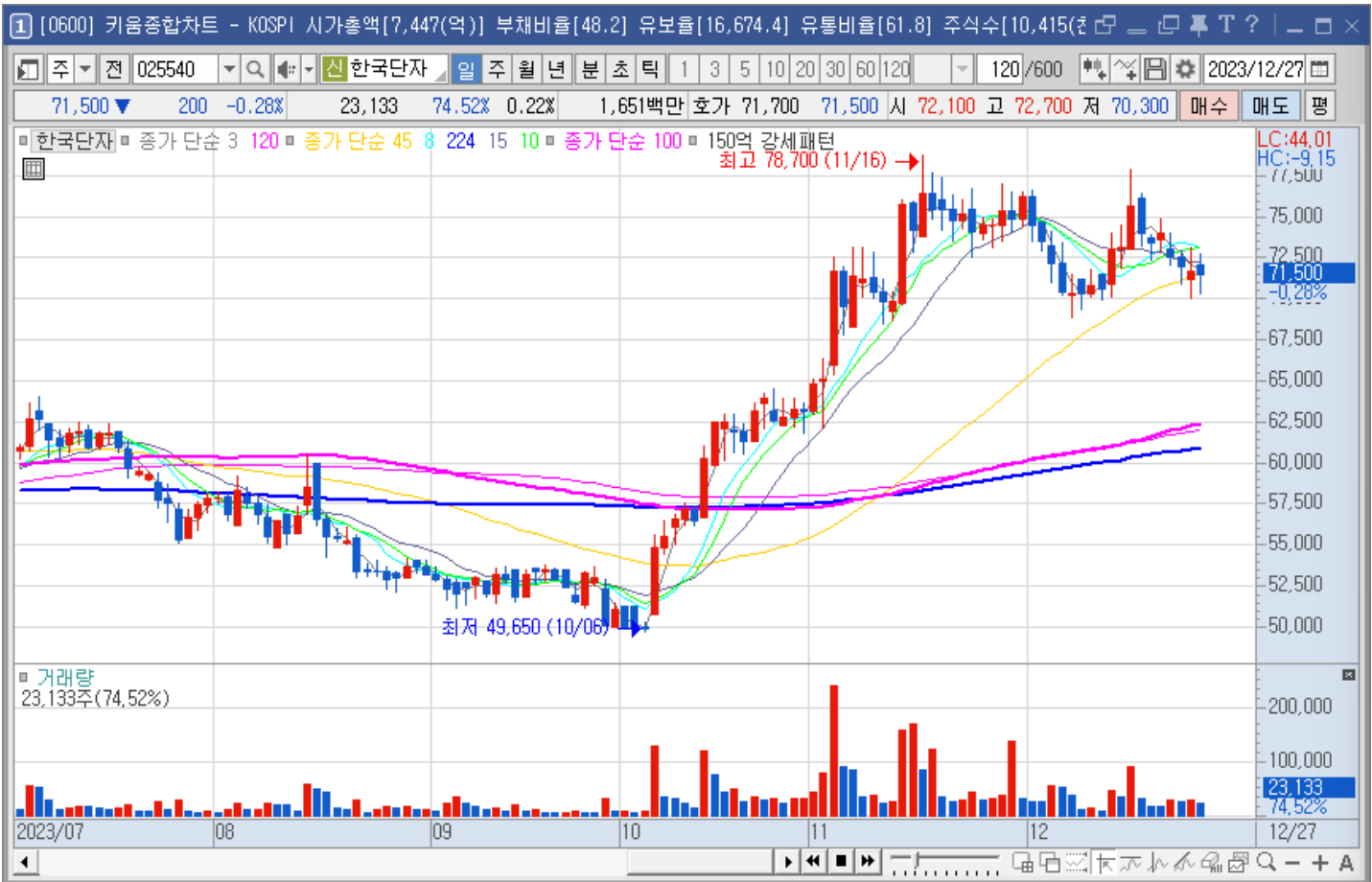


자료: 한국단자

도표 7. 한국단자의 제품 - 정선 박스



자료: 한국단자





---

모아데이터  
사업 확장 준비 완료  
[\[출처\] 하나증권 최재호 애널리스트](#)

### AI 기반의 이상 탐지, 예측 솔루션 선도 기업

모아데이터는 2014년 설립된 AI 알고리즘 분석 기반의 이상 탐지 및 예지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16년 국내 최초로 ICT향 AI 기반 이상 탐지 솔루션인 '페타온 포캐스터'를 개발하고 상용화하였으며, 300여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동사만의 이상 탐지 알고리즘은 AIOps, 헬스케어,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동사는 인공지능 이상탐지 알고리즘을 발전시켜 신체의 이상 여부를 탐지하는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2023년 메디에이지를 인수해 본격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메디에이지가 보유하고 있던 대량의 건강 데이터 등을 동사의 AI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개인의 건강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발전시켰다. 2023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비중은 AI 이상탐지 89.7%, 디지털 헬스케어 10.3%로 구성되어 있다.

### 핵심 역량 기반의 본업 전방 산업 확대와 헬스케어 사업 해외 진출 기대감 상존

모아데이터의 핵심 역량은 사업의 근간이 되는 AI 알고리즘 분석에 있다. 페타온 포캐스터에 활용되고 있는 이상 탐지 알고리즘은 ICT 시스템뿐만 아니라 스마트팩토리 등으로 그 적용처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한 번의 장애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동사의 이상 탐지 알고리즘을 필요한 전방 산업은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사는 고도화 흐름에 맞춰 디지털 면역체계를 위한 이상 탐지 서비스를 개발 완료하였다. 현재 페타온 포캐스터와 고객사가 겹치지 않는 신규 산업군으로 샘플 공급을 진행 중이며, 신규 전방산업 진출을 위한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단계로 파악된다. 헬스케어 사업은 신규 국가 진출을 통한 매출 확대가 전망된다. 2023년은 헬스케어 사업 역량 구축을 위해 과감한 R&D 투자를 집행한 시기였으나, 2024년은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통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동남아의 경우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동남아 국가들을 위주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쳐 신규 매출처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 2023년 매출액 234억원, 영업이익 -14억원 전망

2023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234억원(+7.8% YoY), 영업이익 -14억원(적자전환 YoY)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3년은 신규 서비스 개발에 따른 R&D 비용 집행과 헬스케어 사업 신규 진출에 따른 전사 비용 증가로 인해 이익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4년의 경우 1) 페타온 포캐스터 기반의 견조한 본업과 더불어 2) AI 이상탐지 신규 솔루션 매출 발생과 3)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해외 진출에 따른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9	14	20	22
영업이익	2	3	3	1
세전이익	2	2	1	2
순이익	2	2	1	2
EPS	136	141	54	60
증감율	130.5	3.7	(61.7)	11.1
PER	0.0	0.0	0.0	38.5
PBR	0.0	0.0	0.0	2.0
EV/EBITDA	0.0	0.0	0.0	15.4
ROE	64.1	37.1	5.6	5.1
BPS	210	363	707	1,134
DPS	0	0	0	0





**모비데이즈**

본격적인 자회사 성과 반영 기대

[\[출처\] 하나증권 최재호 애널리스트](#)

**전문 광고 마케팅 기반의 종합 콘텐츠 업체**

모비데이즈는 2014년 설립된 모바일 전문 광고 대행업체로 자회사들을 통해 K-Pop, 게임 등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본업은 주로 모바일 채널의 DA(디스플레이 광고)로 1) 퍼포먼스 마케팅, 2) 광고주 요구에 맞춘 미디어렙, 3) 자체적인 광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애드네트워크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광고산업 내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3년 7월 마케팅 전문 실무교육 플랫폼 '그로스쿨'의 운영사 연플을 인수해 사명을 '모비커리어에듀'로 변경해 고객사 마케팅 인력 교육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광고업 외에 콘텐츠 사업 진출을 목표로하고 있는데 관련 자회사는 1) 게임 퍼블리싱을 주 사업으로 하는 모비게임즈와 2) K-Pop 앨범, 굿즈, MD 상품 등을 유통하는 모비콘텐츠테크가 존재한다.

본격적인 자회사 성과는 2024년부터 드러날 예정

종합 콘텐츠 업체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의 성과는 자회사의 회계 반영 기준 변경에 따른 매출 인식 지연과 인수 자회사 사업 안정화 이슈 등으로 인해 2024년부터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게임 퍼블리싱을 주 사업으로 하는 모비 게임즈는 올해 8월 퍼즐 어드벤처게임 '마법의 숲' 글로벌 퍼블리싱을 완료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서브컬처 RPG 게임 2개를 퍼블리싱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게임 퍼블리싱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추후 게임 개발까지 계획하며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모비콘텐츠테크의 경우 국내의 K-Pop 스타들의 앨범, 굿즈 등을 해외 고객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올해 코코다이버 인수 후 사업 안정화 및 회계 반영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하반기 사업 실적이 내년으로 지연되고 있다. 현재는 사업 안정화가 마무리 됐으며, 2024년에는 지연 없이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2023년 사업 인수할 때 계획했던 자체 MD 상품 제작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단계로 현재 1개 그룹과 MD 상품 독점 제작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계약을 통해 예상되는 매출은 약 10 억원이상 수준이며, 2024년에는 약 10개 이상 그룹과의 신규 계약을 목표하고 있다.

### 2023년 매출액 218억원, 영업이익 4억원 전망

2023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218억원(+98.3% YoY), 영업이익 4억원(-82.1% YoY)을 기록할것으로 전망한다. 기대했던 신규 자회사의 매출은 인수 자회사 사업 안정화 이슈 및 매출 인식 기준 변경으로 인해 내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이익의 경우 신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로 비용이 증가해 다소 부진한 모습이지만, 2024년에는 본격적인 자회사 사업 확장의 성과가 예상되는 만큼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2021년에 틱톡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었던 만큼 틱톡샵 국내 진출에 따른 수혜 또한 예상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26	15	19	16	
영업이익	(3)	6	10	5	
세전이익	(3)	4	10	(6)	
순이익	(3)	3	8	(7)	
EPS	(23)	28	55	(41)	
증감율	적지	흑전	96.4	적전	
PER	0.0	0.0	51.1	(20.2)	
PBR	0.0	0.0	19.8	3.3	
EV/EBITDA	0.0	0.0	0.0	21.1	
ROE	(136.3)	118.1	34.8	(16.3)	
BPS	17	23	142	251	
DPS	0	0	0	0	



풍산  
여전히 저평가 영역

[\[출처\] NH투자증권 이재광 애널리스트](#)

방산 주도 성장 기대, 구리가격은 우상향 전망

높아진 글로벌 안보위험으로 탄약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대구경 탄종 생산능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폴란드에 연 10만발 생산 가능한 탄약공장 건설도 예상되고 있음. 이를 통해 풍산은 올해 1조원 수준의 방산 매출을 27년 1.5조원 수준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신동부문 실적에 영향을 주는 구리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건설 및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전력망 업그레이드/전기차와 같은 에너지 전환용 수요증가로 가격 상승 전망. 이에 따라 풍산은 관련 제품 비중을 현재 30%에서 27년 40%로 늘려 수익성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4Q23 Preview: 방산 영향 호실적 전망

4분기 별도기준 매출 9,320억원(신동 5,190억원, 방산 4,100억원), 영업이익 580억원(신동 50억원, 방산 530억원)으로 전년 비, 전분기비 증가 전망. 방산 부문은 내수 계절성 영향에 따른 증가와 지연되었던 수출 계약 달성할 전망. 신동부문은 판매량 회복에도 4분기 판매가격에 적용되는 구리가격(1개월 후행) 하락에 따른 수익성 부진 지속 전망. 단 최근 구리가격이 남미의 광산 공급 차질과 중국 경제 개선 기대로 톤당 8,500달러 수준으로 회복, 1분기 신동 부문 수익성 개선 기대되고 있는 상황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4,373	4,208	4,536	4,737
증감률	24.6	-3.8	7.8	4.4
영업이익	232	234	291	311
증감률	-26.3	1.2	24.0	7.1
영업이익률	5.3	5.6	6.4	6.6
(지배지분)순이익	175	161	193	209
EPS	6,250	5,756	6,888	7,451
증감률	-28.0	-7.9	19.7	8.2
PER	5.4	6.8	5.7	5.2
PBR	0.5	0.6	0.5	0.5
EV/EBITDA	5.4	4.9	4.0	3.5
ROE	9.9	8.5	9.4	9.4
부채비율	84.3	79.1	73.4	67.9
순차입금	822	551	483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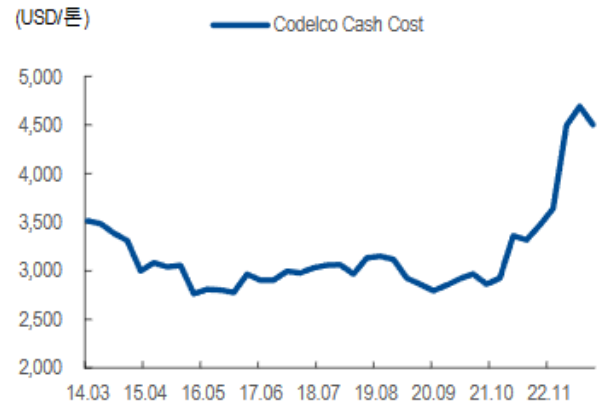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1. 구리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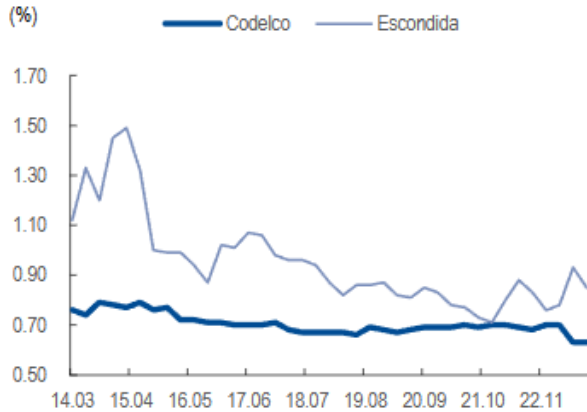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구리 생산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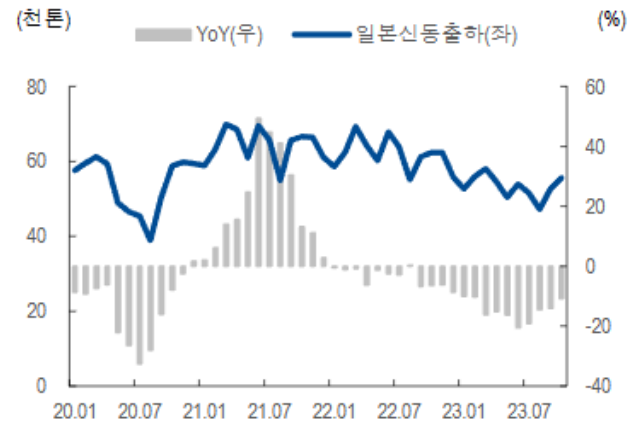
자료: Codelco,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구리 원광 등급



자료: Codelco, BHP,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일본 신동 출하량



자료: JCBA,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HPSP

독보적인 기술, 기대되는 2024년

[출처] NH투자증권 류영호 애널리스트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제조 회사

HPSP는 28nm 이하의 선단공정에서 High-K 절연막을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의 계면특성을 개선하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제조. 20기압 이상의 초고압 환경에서 100%의 수소 농도를 구현하여 저온에서도 어닐링 공정을 효율적으로 수행.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 될수록 낮은 온도라는 장점이 부각. 동사 장비는 파운드리 외에도 DRAM 1bnm, NAND 200단부터 필요성이 증가하고, 메모리 업체의 선단 공정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현재 동사 장비는 반도체 메이저 고객사의 양산에서 가동 중인 유일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높은 기술력과 독점적 시장 지위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성 유지. 동사의 기술 경쟁력을 고려시 당분간 수익성 유지 가능 전망

확대된 생산능력과 신규 장비로 2024 성장 전망

2023년 매출은 1,760억으로 전년 대비 10.5% 성장할 것으로 기대.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체 Capex가 축소되고 있으나 수율 개선, 선단 공정 투자 확대가 지속되며 동사 장비 수요 증가. 2024년은 공장 이전을 통해 생산능력이 2배 확대. 메모리업체들 수요 증가 시기에 맞추어 대응 가능하다 판단. 확대된 생산 능력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 예상

2024년은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고객사 수요 대응 확대와 기존 주요장비인 HPA(고압수소어닐링)에 외에도 HPO(고압습식산화공정)의 매출이 2024년 하반기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HPSP의 2024년 매출액은 2,290억달러로 +30% y-y 성장 기대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159	176	229	293
증감률	73.7	10.5	30.0	28.0
영업이익	85	91	127	171
증감률	88.4	6.4	39.7	35.3
영업이익률	53.5	51.5	55.3	58.5
(지배지분)순이익	66	78	105	139
EPS	903	955	1,269	1,681
증감률	69.7	5.7	32.9	32.5
PER	14.8	49.8	37.5	28.3
PBR	5.6	14.6	10.6	7.8
EV/EBITDA	10.3	39.9	28.1	20.0
ROE	53.2	33.4	32.8	31.7
부채비율	33.6	26.6	24.9	23.3
순차입금	-195	-242	-331	-456

단위: 십억원, %, 원, 배

